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에 관한 주관성 연구

심태은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A Study on Types of Career Barrier perception among College Students

Tae Eun Shim
Center for Career Development,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이 어떠한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계획 및 결정시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고 Q표본은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P표본은 진로 및 취업교과목을 듣는 2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총3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1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며, 이력서를 작성하면서도 부족하게 느껴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 유형2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직업선택과정에서 갈등 및 차별을 바로 인식하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 유형3은 개인성격이 반영되어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해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보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 시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코칭 시 학생들이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원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se to help students plan and make more effective career decis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utilized Q methodology and a Q sample consisting of 33 statements. The P sample consisted of 28 students taking career and employment courses. Three student types were identified. Type 1 is an unstable type that does not identify what he/she likes or is good at and cannot choose a career path because of a feeling of inadequacy while writing a resume. Type 2 is influenced by others and is intensely aware of the conflict and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choosing jobs given the pressure exer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Type 3 misses opportunities due to an indecisive personality that reflec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finds it difficult to choose a career path. The authors ho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college students make appropriate career choices and enable them to overcom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decision-making. In addition, the study provides a basis for developing curricula and comparative programs at universities that better meet the needs of students with respect to education and coaching.

Keywords : Career Barrier, College Student, Perception, Q Methodology, Career Decision

*Corresponding Author : Tae Eun Shim(Dongguk Univ.)

email: shim2593@dongguk.edu

Received July 14,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August 4,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사회에 직면하게 되면서, 진로준비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때 전 생애 주기에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대학 시기가 말할 수 있다. 이때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

Tolberr(1974)[2]는 개인이 진로선택 및 결정에 따라 능력 발휘 기회가 생기고, 사회경제적 지위, 인간관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로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업률 증가로 올바른 방향의 진로선택이 쉽지 않다.

통계청(2021)[3]에 따른 COVID-19로 인한 장기침체는 덩고 많은 국가들의 실업률은 호전되고 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작년보다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의 실업률을 살펴보았을 때 2020년 4월평균 8.8%로 치솟은 뒤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보다 0.9%악화되면서 1999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25개국 중 15번째로 나타났다. 성별 실업률 격차는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남자 4.9%, 여자 6.1%로 남녀 간 격차가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 현상은 대학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려는 대학생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경제적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4,5] 졸업도 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바로 다시 포기하는 취업포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진로선택에 갈림길에서 진로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6].

진로장벽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진로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진로발달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7,8]. 즉 여기서 진로장벽은 걸림돌을 의미하며, 진로장벽 문제는 진로지도나 상

담 및 코칭을 하면서 가장 도와주기 힘든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심리검사를 권유하고, 직업에 대해 궁금하다면 정보수집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또한 진로결정문제는 합리적으로 진로결정 절차를 안내하면 되지만, 진로장벽 문제는 당사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느끼는 고통 정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정서적 변인이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장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진로장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진로준비 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과의 영향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9].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태도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0], 그것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데 장기적인 관심이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낮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장벽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데, 즉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은 낮고,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 또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진로장벽은 좌절진로장벽과 극복진로장벽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성격문제, 정보부족, 흥미부족과 같은 좌절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보이나, 신체열등감이나 부모갈등과 같은 극복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력을 보인다고 밝혔으며[1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취업불안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검증하였다[14]. 그 밖에도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15].

진로장벽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진로나 직업선택에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진로나 직업마다 선호하는 성별이 존재하므로 진로장벽 인

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16]. 또 다른 논문에서도 진로장벽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높으며 유의한 관계도 보인다고 하였다[11,17,18].

학년별로 진로장벽을 살펴보았을 때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며, 전공계열 간에는 진로장벽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보이며, 공학, 교육, 의학계열보다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크다고 나타났다[11,19].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살펴보았는데 이때 자기이해부족, 직업정보부족, 불안감, 미성숙한 진로태도, 진로역량부족, 자신감 부족, 외적지원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진로장벽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였다[20].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으로[21],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과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로장벽은 개인이 지각하는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개인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관성에 귀 기울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유형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목적에 제시한다. 첫째,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진로장벽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그리고 유형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진로선택 및 설계 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설계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2.1 P표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유형의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받는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P표본이 커지면 하나의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소집단 표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22].

P표본은 진로/취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24명에게 참여의사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124명의 학생들에게 진로장벽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후 Q진술문을 완성하고, 참여 의사가 분명한 34명의 학생들에

게 Q-Sorting을 실시하였다. 그 중 6명의 응답지는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제외하고 총28명의 학생들에게 받은 결과지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학년별로는 3학년 11명, 4학년 17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12명, 여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전형별로는 문과계열 9명, 자연계열 8명, 공학계열 11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Q분류 및 자료 분석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취업 교육을 받은 학생 124명에게 “진로장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진로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로장벽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등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진로장벽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탐색장벽검사(KCBI) 문항 및 대학생들의 응답결과를 기반으로 1차 Q진술문 128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128개의 문항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에 대한 요인들이 진술문에 모두 담겨져 있는지 취업 및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 3명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때 전문가는 진로탐색장벽검사를 기준으로 정보부족, 타인과의 갈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요인, 경제적 요인, 자기이해부족 등을 기준으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33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33개의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하고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의 경우 9점을 주어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Q요인분석은 주요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했으며, 아이젠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23],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총3가지 유형이 생성되었다. 각 유형의 아이젠 값은 각각 1유형이 5.9421, 2유형이 3.4889, 3유형이 2.4049이며, 누적변량은 .5327로 나타났다.

Table 1. Variance Analysis

Contents/Type	I	II	III
CHOSEN EIGENVALUES	5.9421	3.4889	2.4049
TOTAL VARIANCE	.2122	.1246	.0859
CUMULATIVE	.2122	.3368	.5327
SOLUTION VARIANCE	.5020	.2948	.2032
CUMULATIVE	.5020	.7968	1.0000

본 연구에서 질문에 대한 인식유형의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유형1은 P=16이 3.1588, 유형2는 P=12가 1.8935, 유형3은 P=15가 1.5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he P sample weight

OVAR	WEIGHT	SEX	OVAR	WEIGHT	SEX
Type 1(N=9)			Type 2(N=9)		
P=2	1.0295	male	P=1	.3792	male
P=3	.7620	female	P=8	.7054	female
P=4	.7793	male	P=9	1.0099	female
P=7	.8750	male	P=10	.8575	mele
P=13	.5040	female	P=12	1.8935	female
P=14	1.0097	female	P=21	1.2575	female
P=16	3.1588	male	P=22	.7447	female
P=24	.8833	male	P=26	.5162	male
P=25	.6930	female	P=27	.9088	female
Type 3(N=10)					
P=5	.4689	male			
P=6	.4463	male			
P=11	.7810	female			
P=15	1.5386	female			
P=17	.8034	male			
P=18	.2735	female			
P=19	.7508	female			
P=20	.8146	male			
P=23	.6936	female			
P=28	.9310	female			

3. 연구결과

3.1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

유형1은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며, 이력서를 작성하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며, 어떤 진로가 나 자신에게 맞는지 결정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Table 3>을 보면 Q15의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z=1.61)”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25 “나의 행복은 내 능력보다는 미래의 남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z=-1.91)”라고 나타났다.

1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16의 경우 Q15, Q3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각각 “아직 실력으로 쌓은 것도 없는데 자소서를 써보면서 확실하게 배운 게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와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볼 시도도 안 해봤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P2의 경우도 “내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전공을 생각하면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 지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정말 이일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Table 3.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15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1.61		
3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1.57		
8	I don't know what kind of work I like.	1.48		
1	I'm not sure what I can do well.	1.24		
16	I don't know about various kinds of jobs.	1.10		
11	I'm afraid I won't find the job I want in the future.	1.08		

24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1.03		
6	I'm worried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get the job I want.	-1.26		
4	I won't get the job I want because of the poor family situation.	-1.59		
27	I am influenced by my parents' opposition or meddling in my career choices.	-1.65		
10	I won't be able to achieve my dream because I can't afford to study what I want.	-1.87		
25	My happiness will depend on my future husband's ability rather than my ability.	-1.91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15	I don't know what I have to prepare to get the job I want.	1.606	-.351	1.957
3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1.568	-.341	1.909
2	I have to choose a job where I can earn a lot of money because I don't have money in my house.	.841	-.701	1.542
14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938	-.511	1.449
1	I'm not sure what I can do well.	1.237	.033	1.204
8	I don't know what kind of work I like.	1.478	.352	1.126

32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645	1.840	-1.196
27	I am influenced by my parents' opposition or meddling in my career choices.	-1.650	-.208	-1.442
28	I feel burdened because my parents and people around me have high expectations for me.	-.121	1.356	-1.477
12	I'm nervous because the job I want is so popular.	-.626	1.156	-1.783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서 Q27에 대한 이유로 “내 직업선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대학에 들어 올 때도 부모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었다는 것은 뒤늦게 깨우치게 되었다. 나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찾게 된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꼭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진로장벽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을 살펴보면 Q1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d=1.957)’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2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기가 많아서 불안하다(d=-1.783)’이다. 이들은 진로장벽을 진로 선택 시 자기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를 얻는 것에서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전공지식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것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3.2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

유형2는 외적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직업선택과

정에서 갈등 및 차별을 바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28을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z=2.44)’라고 가장 동의를 하였으며, Q4는 가장 큰 비동의 항목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z=-2.42)’는 의견을 가져오게 되었다.

2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12의 경우 Q28, Q33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각각 “다양성을 몰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택했던 것 같다.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부담도 많이 갔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공도 택하게 되었다.”와,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취업을 할 때 암묵적인 제한이 존재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미 겪은 수많은 사례를 들었다. 그래서 차별이 가장 없을 것 같은 공무원을 선택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서 Q3에 대한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곳, 좀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주변 이야기에 내 진로가 변하는 것 같다. 나 자신을 모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찾다보니 진로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변 의견에

Table 4. The Statements of Type 2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28	I feel burdened because my parents and people around me have high expectations for me.	2.44		
32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33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2.25		
30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1.43		
		1.00		
14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1.03		
25	My happiness will depend on my future husband's ability rather than my ability.	-1.22		
5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1.20		
10	I won't be able to achieve my dream because I can't afford to study what I want.	-1.25		
3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1.35		
4	I won't get the job I want because of the poor family situation.	-2.42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33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1.434	-.977	2.411
28	I feel burdened because my parents and people around me have high expectations for me.	2.441	.075	2.366
24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846	-1.209	2.055
30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995	-.951	1.946
32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2.246	1.039	1.207
26	I won't make much money because I'm a woman.	-.208	-1.340	1.132
1	I'm not sure what I can do well.	-.264	.784	-1.048
11	I'm afraid I won't find the job I want in the future.	.073	1.136	-1.064
5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1.197	.049	-1.247
15	I don't know what I have to prepare to get the job I want.	-.567	.736	-1.303
14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1.028	.472	-1.500
3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1.352	1.119	-2.471

자신의 진로가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을 살펴보면 Q33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d=2.41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3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d=-2.471)'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 후 현장실습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갈등 및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외적 요인들을 제시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교육에 있어서의 성 편견, 직업적 고정관념 등을 진로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또한 타인과의 갈등이 많은 유형으로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진로선택 시 두려움을 겪는 유형이었다. 이 유형의 경우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인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그에 따른 만족 및 불만도 타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3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유형3은 개인 성격 특성상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보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을 보면 Q32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동의하였으며, 비동의하는 진술문은 Q26으로 '나는 여자라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3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15의 경우 Q32, Q12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취업준비가 잘 되지 않아 걱정만 많은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서 불안함이 많이 든다. 이번에 졸업을 해야 할지 수료상태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와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혹시 실패할까 라는 생각 등이 많이 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P=28의 경우도 "다른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교환학생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고 교환학생을 갔다. 내가 왜 포기했을까 후회만 남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Q12에 대한 생각은 "내가 원하는 직업은 공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 인기도 많고 주변에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한 마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갈수록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걸으로는 대범한 척하지만 사실 우물쭈물하면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있다. 고쳐야할 습관이고 넘어야할 장벽이라 생각하지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동의하였으며, 비동의하는 진술문은 Q26으로 '나는 여자라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5.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32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1.43		
12	I'm nervous because the job I want is so popular.	1.33		
7	I don't know what is important to me.	1.26		
11	I'm afraid I won't find the job I want in the future.	1.19		
5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1.00		
10	I won't be able to achieve my dream because I can't afford to study what I want.	-1.03		
25	My happiness will depend on my future husband's ability rather than my ability.	-1.21		
24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1.38		
2	I have to choose a job where I can earn a lot of money because I don't have money in my house.	-1.48		
4	I won't get the job I want because of the poor family situation.	-1.70		
33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1.80		
30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1.89		
26	I won't make much money because I'm a woman.	-2.10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5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1.001	-1.050	2.051
6	I'm worried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get the job I want.	.353	-1.068	1.421
21	If I have a hard time, I won't be able to solve it.	.801	-.439	1.240
12	I'm nervous because the job I want is so popular.	1.330	.178	1.153
24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1.385	-.093	-1.291
26	I won't make much money because I'm a woman.	-2.102	-.393	-1.709
2	I have to choose a job where I can earn a lot of money because I don't have money in my house.	-1.479	.459	-1.938
30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1.891	.492	-2.383
33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1.800	.640	-2.440

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만 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서 Q26에 대한 이유는 “내가 여자라는 성별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는 여자가 더 많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호봉의 개념이 있으니 나만 취업을 잘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3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을 살펴보면 Q5는 “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d=2.05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33으로 “내가 여자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d=-2.440$)”이다. 이들의 특징들을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유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설계 및 결정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총3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유형1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 유형2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 유형3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1은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이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불안해하는 유형이었다. 이 유형에서는 학년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진로에 대한 내적 불안감이 크며, 항상 자신이 진로에 대한 정보습득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24],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현재를 문제 상황이라 인식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다[25].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써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6,27]. 그리고 이 유형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기평가를 낮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밀관성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유형인 친구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대학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이해를 돕고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진로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교육·상담을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피드백 해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파악하고 상담 및 코칭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형2는 “타인영향을 받아 진로를 선택하는 유형”으로 외적요인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진로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대부분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대한 편견이 컸으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전공별 편견으로 인하여 진로선택 시 영향을 받아 취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 정도는 개인내적요인도 있으나 환경적 영향인 사회문화적 배경, 가족의 지원 등이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였다[28].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외적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관계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맥락요인이 많아 사회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태도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장벽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29-31]. 이들은 타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인 반응에서는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반응에서는 타인에 의한 경험들이 자신에게 동화되어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학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튜터링 활동을 확대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3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성공에 이르는 단계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에 따른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장벽인 친구들에게는 선택장애도 있었다. 그러므로 무언가

를 선택할 때 3초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단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유 부단은 의심과 두려움을 낳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32,33].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3~4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잦은 퇴사와 이직이 많아져 이전과는 다른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진로장벽에 대한 대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대학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A. Jeong, J. K. Le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Career problems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career study*, Vol.8. No.2. pp.47-74. 201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13960>
- [2] Kahn, C. Tolbert, EL. "Counselling for Career Development",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8. No.4. 1974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Employment by age press release*. 2021.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4] Y. H. Sung, E. Y.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decisiveness for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The mediational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of Self-esteem".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cation*. Vol. 33. No. 1. pp43-64. 20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2274>
- [5] Y. H. Kim, T. S. Koh. "The Efficis of stress, self-esteem, and meaning in life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4. No. 3. pp.263-275. 201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2428>
- [6] Joonang ilbo news. "Recruitment and cancellation four times". <https://news.ajns.com/article/24040252>
- [7] Swanson, J. L., & Woitke, M. B.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5, pp. 443-462. 1997.
- [8] Crites, J. O.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69.
- [9] E. S. Kim, J. P. Kim & J. C.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Drama & Theatre majors in Credit Bank Syste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1. pp.131-151. 201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08577>
- [10] E. K. Baek, E. J. Jung.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9. pp.339-362. 201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6390>
- [11] H. J. Seo, J. Y. Lee. "The Relationships among Grit,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pp.1259-1284. 2021.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1259>
- [12] Y. J. Jun, ML HL Park.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in respect to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netal psychology*. Vol.7. pp.23-37. 2018. <http://scholar.dkyobobook.co.kr.sproxy.dongguk.edu/searchDetail.laf?barcode=4050026991613>
- [13]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Hongik University*, 200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eb452b2d7f2371dffe0bdc3ef48d419&keyword=the%20influence%20of%20career%20barriers%20%20Hope%20and%20Career%20decision
- [14] I. H. Kang, K. L. Yu. "The Influenc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job-seeking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through perceived career barri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1. pp.21-42. 20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2273>
- [15] C. S. Jung.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f

-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barrier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3. pp.215-226,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3.215>
- [16] S. S. Lee, C. Y. Jyung.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39. No.4. pp.83-109. 200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48861>
- [17] Y. S. Jang, B. K. Song.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7. pp.363-39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62476>
- [18] A. R. Cha, H. K. Le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Hope as a Mediatin Variable". *The Consultative Studies*, Vol.15. No.1, pp.343-358. 201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15733>
- [19] H. J. Im, S. N.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Mediatind effectcs career stress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East West Medicine*. Vol.45. No. 2. pp.21.30. 2020.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54002>
- [20] A-Ra. Lee, J. Y. Lee, B. Y. Son. "A Qualit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of career barri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1. pp.35-6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67380>
- [21]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22] H. K. Kim. "Q Methodology ; Philosophy of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 2008.
- [23] T. E. Shim, Y. L. Lee. "A Sudy on the Trpes of College class percep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taion society*. Vol.21. No.3, pp.180-189. 20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0259>
- [24] K. H. Paek, K. H. Yu.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of security major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security and security*, Vol.29. pp.115-137. 2011.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113663902108&oCn=JAKO201113663902108&dbt=JAKO&journal=NJOU00326758>
- [25] J. W. Kim, B. B. Min. "Intolerance of uncn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998. pp.83-92. 199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5940>
- [26] S. J. Shin, H. Y. H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self concept clarity", *Journal of the Future youth society*, Vol.11, pp.95-116. 2014.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84632>
- [27] N. R. Kim,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1. No.4, pp.111-134. 201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32075>
- [28] Sampson, J. P., Reardon, R. C., Peterson, G. W., & Lenz, J. G. *Career counseling and service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Belmont, CA: Brooks/Cole. 2004.
- [29] E. Y. Kim.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9. No.4. pp.1079-110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640>
- [30] E. Y. Son, J. H. So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2. pp.399-417. 200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505>
- [31]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 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https://doi.org/10.1037/0022-0167.47.3.301>
- [32] Y. M. Baek.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education of character strength". *Th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pp.1009-1029. 2020.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11.1009>
- [33] Peterson, C. & Seligman, M .E. P. "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심 태 은(Tae Eun Shim)

[정회원]



- 2003년 8월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7년 6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교수법 연구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교수학습, 역량, 평가, 진로, 취업, 입학, Q방법론